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	1
2. 주요 통계	3
3. 2014년 경제 · 산업 키워드	4

주요 동향

◇ 美 FOMC 의사록, “양적완화조치 '14년 하반기 종료 필요”

- 양적완화조치 규모, '14년 1월부터 100억달러 추가 감축* 결정
*매월 850억달러 → 750억달러
- (Barclays) 금년 9월까지 FOMC 회의시 양적완화조치 규모를 100억달러씩 감축하고, 마지막에 150억달러를 감축하여 10월 종료할 것으로 전망

◇ ECB, 예상대로 기준금리 0.25%로 동결

- 12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0.8%로 전달보다 0.1%p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데 따른 대응으로 평가(블룸버그)
- (Draghi 총재) 오랫동안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표명

◇ 주요 IB들, 금년 中경제성장 우호적 전망

-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억제책 실시로 국내투자 둔화가 예상되나, 수출강세 및 내수증가로 투자둔화 영향이 상쇄될 전망
- UBS(7.8%), BOA-ML(7.6%), HSBC(7.4%)

◇ IMF 총재,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계획

- 美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개선에 따라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조만간 상향조정할 계획
- 선진국 금융시장이 점차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,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각

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美 경기개선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해 달러화 대비 약세, 엔화대비 소폭 강세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엔화 및 유로화 대비 소폭 강세

구 분	'13년말	'14. 1. 3	'14. 1. 10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55.2	1,061.4	6.2
₩/100¥	1,002.3	1,012.7	1,011.3	△1.4
¥/US\$	105.30	104.20	104.95	0.75
US\$/€	1.3736	1.3646	1.3613	△0.0033

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주초 골드만삭스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보고서로 국채선물 매수세가 확대하며 큰 폭 하락, 이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하자 매도세로 반전되며 하락폭 제한
- (美 국채금리) 고금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고용이 개선되지 못했다*는 인식으로 1.10자에만 0.11%p 하락하는 등 큰 폭 하락
*현지시간 1.10자 발표 12월 민간고용 7.4만명 예상치(20만명) 대비 큰폭 하회

구 분 (%)	'13년말	'14. 1. 3	'14. 1. 10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92	2.91	△0.01
미국 국채(10년)	3.03	2.99	2.86	△0.13

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HSBC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조정의 영향으로 '13.9.4일 이후 4개월來 최저치 기록 [(1.3) 1,946.14 → (1.10) 1,938.54]
- (美 DJIA) 12월 고용지수 하회로 큰 폭 하락했으나, 양적완화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폭 제한[(1.3) 16,469 → (1.10) 16,437]

2 주요 통계

- ① **IT수출('13년)** : 수출은 전년대비 9.1% 증가한 1,694억 달러로 사상최대실적 기록, 전체산업 수출(5,597억 달러)의 30.3% 차지
- 휴대폰(248.7억달러, 23.0% ↑), 반도체(571.5억달러, 13.3% ↑), TV(74.3억 달러, 18% ↑) 등이 두자리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디스플레이(293.3억달러, 8.1% ↓)는 부진
 -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.5% 증가한 136.8억 달러, 수입은 5.4% 증가한 69.4억 달러, 수지는 67.4억 달러 흑자
- ② **외환보유액(12월)** : 3,464.6억 달러로 전월말(3,450.1억달러) 대비 14.5억달러 증가
-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,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서 기인
 - 1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
- ③ **BDI지수** : 1,512로 전주대비 524point 하락
- 중국 철광석 수입량 감소에 따른 하락 추정
 - 금주 HRCI 지수는 발표사(Howe Robinson社)측이 미발표*
*사유 미상
- ④ **유가** : 공급 증가 전망, 정제유 재고 부담 등으로 브렌트유를 제외하고 소폭 하락

(US\$/배럴)

유 종	1월 3일	1월 10일	전주비
WTI유 현물	94.06	92.73	△1.33
Brent유 현물	106.72	106.88	0.16
두바이유 현물	105.22	103.99	△1.23

1 그레이 스완(Gray Swan)

- 예측할 수 있는 악재임에도 적당한 해결책이 없어 상시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태
 -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상태를 뜻하는 블랙스완(Black Swan)에서 파생된 개념
- 유럽 재정위기국의 은행부실화 가능성과 개도국 외환위기 가능성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위협하는 '그레이 스완'
 - 유럽 은행부실화 가능국 : PIGS국가
 - '13년 2분기 현재 부실채권비율 : 그리스(27.9%), 이탈리아(15.1%), 포르투갈(10.6%), 스페인(8.2%)
 - 개도국 외환위기 가능국 : 인도, 브라질, 터키, 인도네시아 등

2 세계 제조업 지형도(Manufacturing Map) 재편

-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책, 중국의 세계공장 역할 약화, 포스트 차이나국의 대두 등으로 세계 제조업 지형도 재편
 -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기능과 첨단기술 확보 등의 중요성을 인식,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
 - 중국 경제성장세 약화, 임금상승에 따른 제조단가 절감효과 약화 등으로 기업의 탈중국화 심화
 - ABC(아르헨, 브라질, 칠레), 바트 경제권(태국, 캄보디아, 미얀마, 베트남 등), ECOWAS(서아프리카 15개국) 등이 포스트차이나 경제권으로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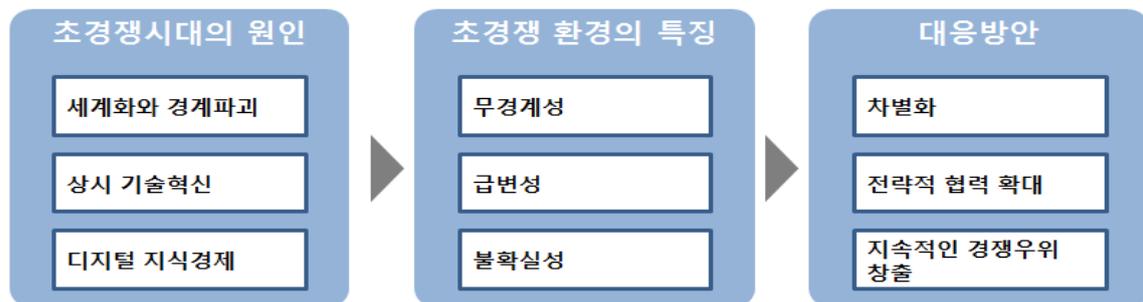
3] 경계파괴 및 초경쟁(Hyper Competition) 시대

-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산업간 융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간 경계 파괴, 세계화, 상시 기술혁신 등이 심화되는 초경쟁 시대* 돌입

* 다트머스대 리처드 다베니 교수가 주창, 무경계성, 급변성,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등장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주장

- 대응방안으로 모방하기 힘든 '가치 창조'를 통한 차별화 시도

- 기존 협력사 및 이종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창출
- 경쟁우위의 유지기간이 짧아 새로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



4] 전략적 Micro Management

-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(New normal)시대*의 도래로 기업들은 공격 경영보다는 내실경영을 통해 제도약을 준비

*저성장, 저소비, 높은 실업률, 고위험, 규제 강화 등이 지속되는 시대

-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Master Plan보다 전략적 유연성과 민첩성이 중요, Micro Management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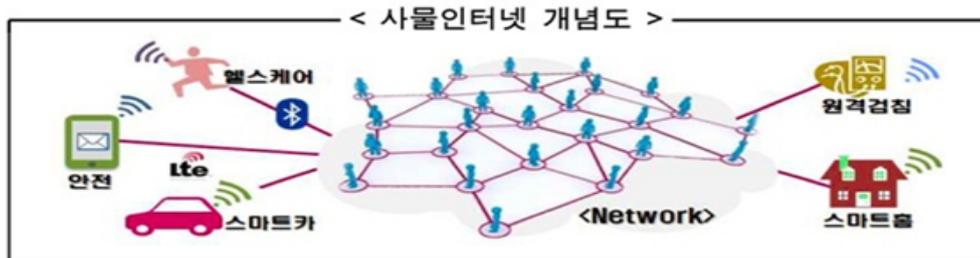
⇒ 위기에측보다는 위기대응에 집중

5 하이퍼 커넥티드(Hyper-Connected: 초연결) 시대

□ 모바일 기기 보급, 통신 인프라 발달로 사람과 사물,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과 스마트 플랫폼으로 24시간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(초연결) 시대 심화

○ 플렉서블 디스플레이, 배터리, 생체인식 기술 등의 발달로 가속화된 '웨어러블 디바이스', 전자제품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'사물인터넷' 등이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를 주도

※ 사물인터넷(Internet of Things) : 전자제품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기술로, 스마트그리드, 스마트홈, 헬스케어, 지능형 차량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



6 운송산업 분야의 고효율화(Higher Efficiency) 경쟁 심화

□ 선박 : 대형선사들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선박의 고효율화 및 대형화 시도

□ 항공 : 연료 효율화를 위하여 최신 기종을 도입하는 경쟁전략을 취하며 친환경 이미지도 부각

※ 연료가 18% 절감되는 B777 기종, 이륙무게가 최대 40% 가벼운 A380 등을 적극 도입

□ 자동차 : 고연비 경쟁으로 승용디젤,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연비 자동차의 출시 확대

7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

- 북미지역의 비전통자원(셰일가스+타이트오일) 생산증가로 201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주로 이동 전망
 - 미국은 2017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석유 최대 생산국으로 등극 예상. 비전통에너지, 해양석유,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북미지역의 최대 경쟁력
- 중동지역은 자체수요 증가, 생산량의 제한적 증가 등으로 수출 여력이 감소하며 에너지시장에서의 지배력 약화

※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패러다임 :

“양적성장 →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 추구”로 전환

	기존정책 패러다임	→	新정책 패러다임
정책목표	해외자원개발 물량확대 (공기업 대형화)		국가 자원개발 역량 제고 (공기업 내실화, 민간투자활성화)
핵심주체	공기업 중심		공기업 + 민간기업
재정지원	공기업 출자 중심		민간투자 자원 중심
사업방식	M&A, 생산광구 지분투자		탐사광구 운영권 확보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